



“탄소펀드 30억원 이상 규모에 투자계획”

산자부는 지난 9월 5일 ESCO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ESCO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 중 눈에 띄는 항목은 ESCO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탄소펀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탄소펀드 운용을 위한 컨소시엄으로 지난 4월 한국운용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증권으로 구성된 한국운용컨소시엄을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탄소펀드는

2,000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투자자가 30인 이하인 사모펀드 형태다. 초기에 프로젝트 편입이 완료되지 않고 펀드 설정 후 완료되는 블라인드펀드 방식이다. 프로젝트의 투자일정에 맞추어 투자자들로부터 실제 투자금액을 요청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운용된다. 탄소펀드 담당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 SOC운용본부 이주수 팀장을 만나 탄소펀드 특징과 ESCO의 탄소펀드 이용조건에 대해 물었다.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 이번 탄소펀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국운용이 운용할 예정인 탄소펀드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최초로 CDM사업 및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입니다. 탄소펀드 출범 전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정되었으나 CDM사업 및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탄소펀드가 처음입니

다. 둘째는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요. 셋째로는 만기가 15년인 펀드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함으로써 실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한편, 탄소펀드와 함께 탄소펀드에서 투자한 CDM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에 투자

하는 탄소배출권펀드가 동시에 설립됐습니다. 이러한 두개의 펀드의 동시설정을 통하여 두 펀드가 서로 안정적인 수요처와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거래시 발생 가능한 거래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는 사업과 소규모태양열발전사업과 같이 현금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목표수익율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 현재 투자현황은?

지난 4월 컨소시엄 구성 후 8월에 탄소펀드를 위한 투자회사가 설립되었고 12월까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탄소펀드에서의 첫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양광프로젝트 4건, 폐열발전사업 및 반도체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저감사업 각각 1건, 바이오가스사업 2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에 탄소펀드에서 모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 ESCO가 탄소펀드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탄소펀드는 투자대상을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환경관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및 에너지절약사업 등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소펀드의 투자자들은 연기금 및 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므로 투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익률이 요구되지요. 탄소펀드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체의 수익률이 8% 이상,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2%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투자규모를 가진 프로젝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장현황 및 전망은

2006년의 경우 300억불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약 1,500억불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

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중 EU지역의 EU-ETS시장이 전체 거래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어떤 주체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즉, 선도거래형태의 경우 매입자가 위험을 많이 집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CDM시장의 40%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에서는 정부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8유로 이하로 매각하지 말 것을 권고함에 따라 CER가격이 낮아지더라도 8내지 9유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CER가격은 15유로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감축의무량 1차 이행기간인 2012년까지 연간 12억톤이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상 및 JI(Joint Implementation)사업으로 인한 배출권공급이 연간 4억톤, 감축의무해당국가 자체 감축량 6억톤을 합하여 공급량은 10억톤으로써 연간 2억톤의 배출권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5년 동안 10억톤의 탄소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이 탄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노력 정도, 유럽 국가들의 CER 등에 대한 수입제한 비율, 감축설치비용, CER 등 탄소배출권의 생산량 등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노력은 커지고 CER 등 탄소배출권의 생산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2013년 이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토의정서와 같은 새로운 협약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감축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협약에 대응하는 내부적인 기후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별 규제가 강화되어 농업과 육상, 해상, 항공운송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에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국가로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할 때 향후 탄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